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2.10월]

- 국제원자재 가격, 경기침체 우려 등 거시환경 악화가 관건 -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동향

- [원자재지수] 9월 S&P GSCI는 4개월 연속 하락(-8.7%). 에너지 부문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산업금속도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농산물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보합세
 - 부문별로 에너지 -12.4%, 농산물 +0.1%, 산업금속 -5.9%, 귀금속 -2.3% 등
 - 금년 누적 상승률은 S&P GSCI +8.3%, 에너지 +16.9%, 농산물 +7.5%, 산업금속 -19.7%
- [품목별] WTI-11.2%, 美 천연가스 -25.9%, 유럽천연가스 -27.9%, 亞 휘발유 -8.0%, 옥수수 +0.6%, 소맥 +13.9%, 대두 -9.5%, 구리 -3.1%, 알루미늄 -8.4%, 니켈 -1.4% 등
 - 천연가스 가격의 큰 폭 하락은 비수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유럽의 재고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여타 지역에서 별다른 수급불안이 없었던데 기인

주요 이슈 및 전망

- [원유] 과도한 낙폭(3개월간 -30%)과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제유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약세추세의 반전 여부는 수요측 요인에 좌우될 전망
 - 10.5일 OPEC+ 회의에서 일일 100만배럴 감산이 결정될 경우 상당폭 반등이 기대.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달러화 향방 등 시장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국제유가 반등의 장기화 여부는 불투명
- [곡물] 수확철 본격화, 각국의 공격적 긴축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은 하방압력 하에 놓일 전망. 다만 파종이 시작된 남미 날씨와 러시아 변수에는 주목할 필요
 - 돌발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험선호 심리의 향방에 따라 금융자금이 유출세로 전환하여 곡물가격 전반에 언더슈팅(undershooting)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 [비철금속] 국제비철금속 가격은 공급측 요인보다 수요측 요인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 움직임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은 가격 전망치를 하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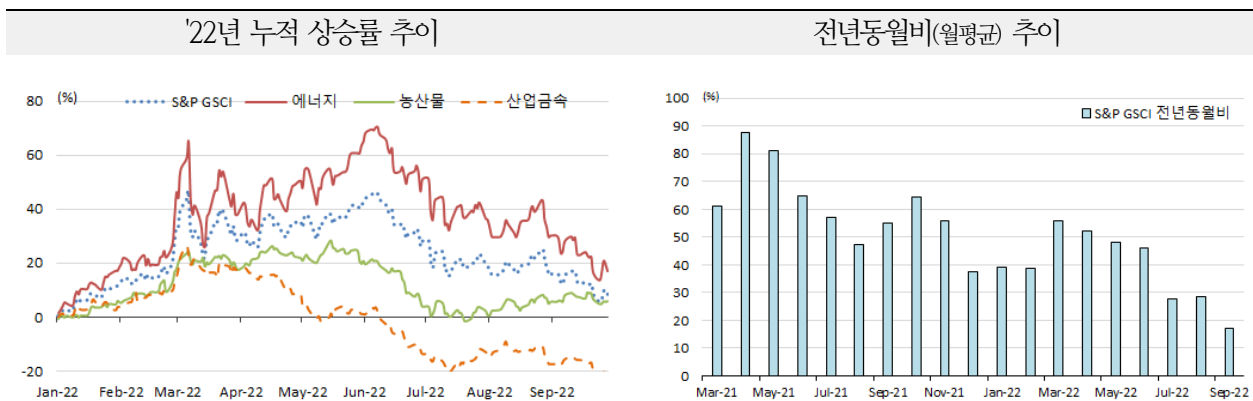
1.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 S&P GSCI 추이

- 9월 S&P GSCI는 4개월 연속 하락(-8.7%). 에너지와 산업금속, 귀금속 부문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농산물은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보합세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지수	8월말	9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동월비(%)
S&P GSCI*	665.93	607.76	-8.7	8.3	9.0
에너지	336.62	295.03	-12.4	16.9	13.1
농산물	478.39	478.74	0.1	7.5	14.9
산업금속	426.06	401.06	-5.9	-19.7	-14.5
귀금속	2215.46	2163.44	-2.3	-9.5	-5.7
축산물	340.92	327.07	-4.1	1.6	8.0

* WTI, 美천연가스, 소맥, 옥수수, 원당, 구리, 니켈,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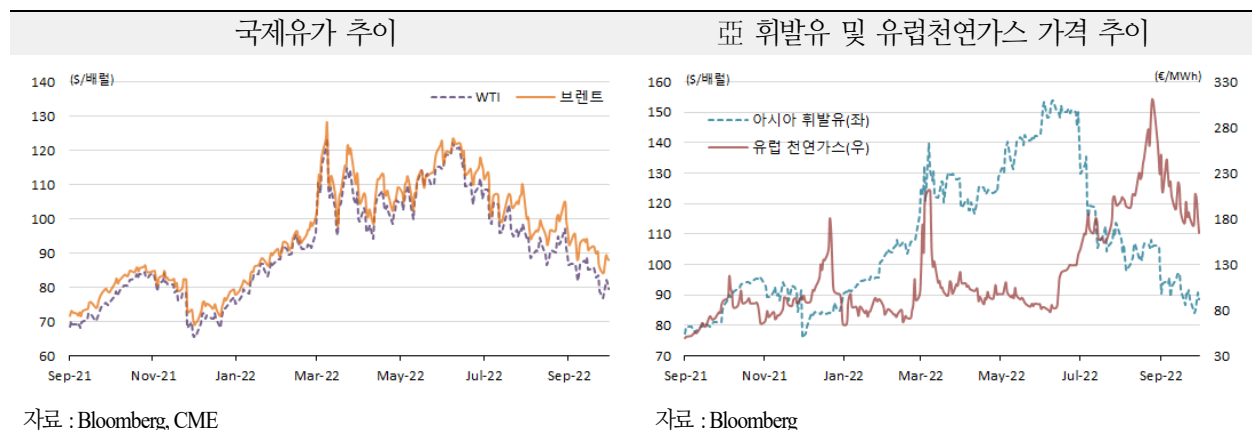
2. 원유

□ [9월 시황] WTI 전월 대비 -11.2%, 美 천연가스 -25.9%, 유럽 천연가스 -27.9%

- WTI는 사상 최대 규모의 美 허리케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 긴축과 달러강세 지속, 경기침체 우려,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80 하회
-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과 유럽에서 큰 폭으로 하락. 비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유럽의 재고 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여타 지역에서 별다른 수급불안이 없었던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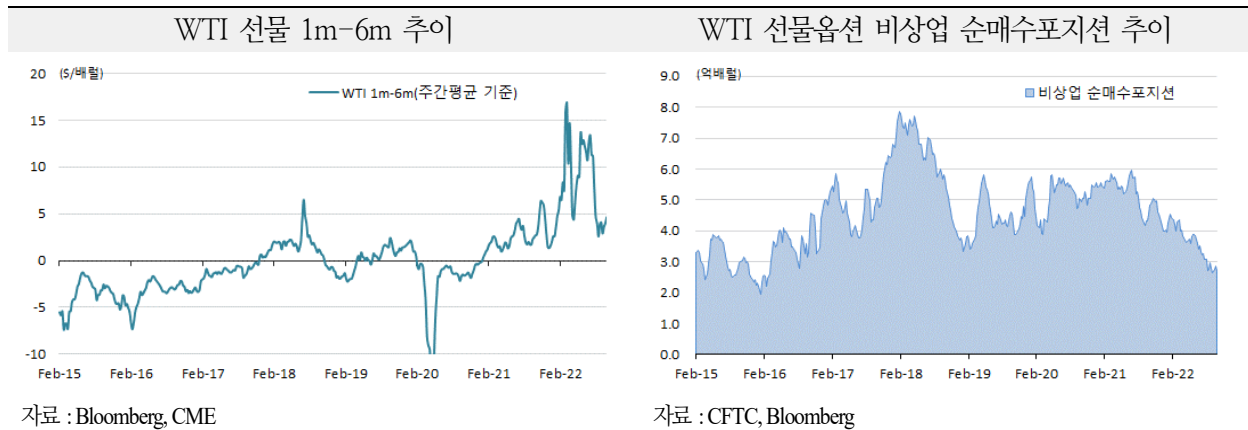
품목	8월말	9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WTI(\$)	89.55	79.49	-11.2	5.7	5.9	68.08	98.35
브렌트(\$)	96.49	87.96	-8.8	13.1	12.0	70.95	102.55
두바이(\$)	95.55	90.10	-5.7	17.8	18.7	69.01	101.42
美휘발유(\$)	109.45	103.85	-5.1	11.0	9.7	89.13	131.59
亞휘발유(\$)	96.21	88.51	-8.0	-2.0	4.1	76.97	116.99
美천연가스(\$)	9.13	6.77	-25.9	81.4	15.3	3.723	6.692
유럽천연가스(€)	228.90	165.00	-27.9	151.9	83.4	47.38	135.40

주 : NYMEX-ICE 선물가격 기준(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 단 두바이유, 亞휘발유(Ron 92 기준)는 현물가격.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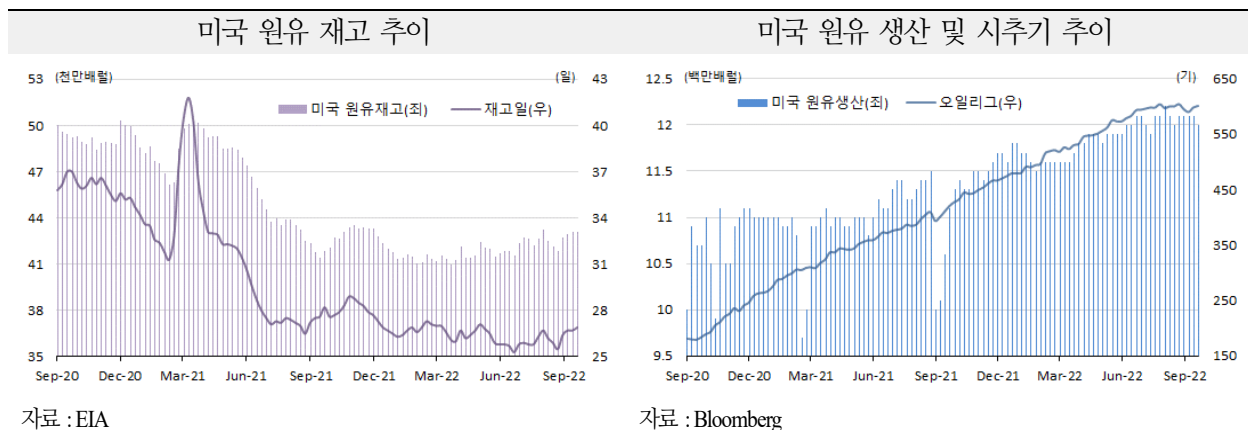


□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

- WTI 선물시장 지표 : 월물간 스프레드와 금융자금 동향은 상반된 신호
 - WTI 1개월물과 6개월물 스프레드(1m-6m)는 9월 마지막 주 \$4.6으로 8월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는 최근 원유 수급이 타이트함을 시사
 -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9.27일 2.72억배럴로 '16년 3월 이후 최저치. 연준의 공격적 긴축, 강달러 등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반영



- 미국 실물지표 : 원유재고 소폭 증가, 생산은 6월말 이후 정체 양상
 - 원유재고는 9.23일 4.31억배럴로 8월말에 비해 1,243만배럴 증가(+3.0%). 반면 휘발유재고는 2.15억배럴로 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 원유생산은 9.23일 일일 1,210만배럴로 6월말 이후 증가세가 멈춘 상황(20. 3월의 역대 최고치 대비 -100만배럴). 시추기(oil rig)는 602기로 7월 중순 이후 증가세 정체
 - 원유수요(4주 평균)는 9.23일 일일 1,955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7월 이후 전년동기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 지속



- OPEC 및 중국 지표 : 사우디 OSP(對亞 10월인도분) 하락, 중국 수입 3개월 연속 감소

	7월	8월	9월	비고
OPEC생산(일 백만배럴)	29.05	29.64	29.89	• 8~9월 사우디 19만배럴 증산
여유생산능력	4.91	4.39	4.17	• 이란 제외 시 일 283만배럴
사우디 OSP(對亞)	\$9.3(8월인도)	\$9.8(9월인도)	\$5.9(10월인도)	• 4개월래 첫 인하. 수요둔화 우려 반영
중국 원유수입(백만톤)	37.33	40.35	-	• 전년동월 대비 -9.4%(연간으로 -4.7%)

주 : OSP(Official Selling Price)는 두바이유/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 자료 : Bloomberg

□ [이달의 관전포인트] OPEC+ 생산, 달러화, 러시아의 대응, 中 코로나 봉쇄, 美 SPR 등

- OPEC+, 대규모 추가 감산 가능성
 - OPEC+는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10월초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을 논의할 계획. 러시아는 10월 회의에서 일일 1백만배럴의 감산을 요구할 가능성
- 달러화, 강세 전망 속에 고평가 부담 증대(※달러와 유가는 逆의 관계)
 - 달러인덱스는 9월말 한 때 114를 돌파하는 등 20년래 최고치.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 당분간 강세 전망 우세
 - 다만 여타 중앙은행도 금리인상을 가속화하고 있고 고평가 부담도 늘고 있어 향후 달러화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전황이 불리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
 -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할 정도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석유가격 상한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에 대한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공급난이 재부각될 소지 (※유럽은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원유수입을 지속. 다만 규모는 크게 축소)
-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원유수요에 긍정적 영향 예상
 - 인구 2,100만의 청두는 9월 중순 방역봉쇄를 전면 해제했으며, 740만명의 다롄도 봉쇄를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영을 재개
- 미국 전략비축유(SPR) 큰 폭 감소는 수급 불안요인
 - 러-우 전쟁 이후 방출 결정으로 SPR은 2월초 5.88억배럴 → 9.23일 4.23억으로 급감 (38년래 최저)함에 따라 향후 재비축 수요 등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전망] 과도한 낙폭(3개월간 -30%)과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제유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약세추세의 반전 여부는 수요측 요인에 좌우될 전망

- 10.5일 OPEC+ 회의에서 일일 100만배럴 감산이 결정될 경우 상당폭 반등이 기대. 하지만 수요 둔화 우려 등 불확실한 시장의 대내외 여건 상 반등의 장기화 여부는 불투명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9월(a) ¹⁾	'22.4Q(f) ²⁾	'23.1Q(f) ²⁾	2Q(f) ²⁾	3Q(f) ²⁾
WTI	84.02	91(-5)	88(-4)	88(-4)	88(-)
브렌트	90.70	93(-6)	90(-5)	94(-1)	91(+1)

주: 1) 9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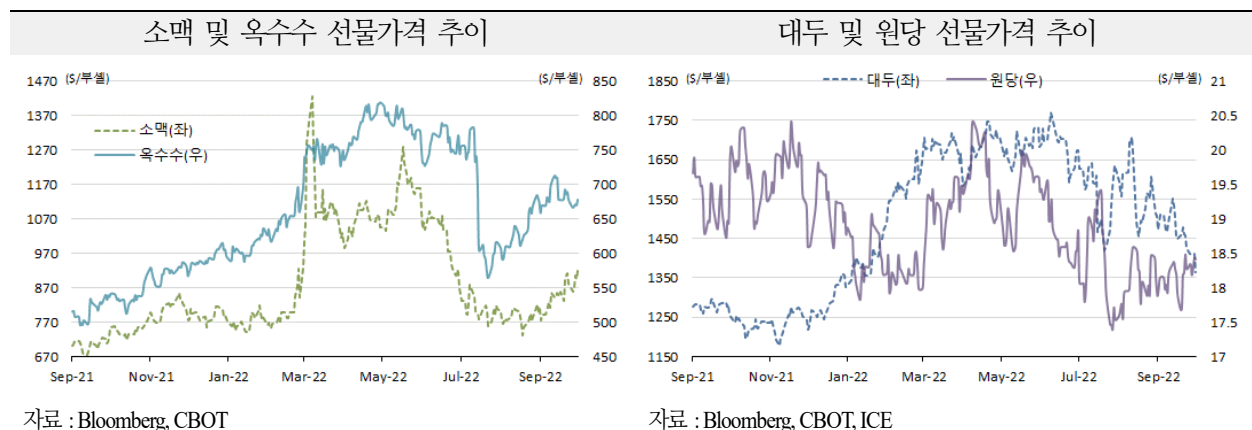
3. 곡물

□ [9월 시황] CBOT 소맥 전월 대비 +13.9%, 옥수수 +0.6%, 대두 -9.5%

- 소맥 선물가격은 달러강세 및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황의 열세를 빌미로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을 다시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상승
- 옥수수는 유가 하락과 강달러 등 약세요인을 美 수확속도 부진이 상쇄하며 약보합세. 대두는 美 수확 전망이 하향조정 되었으나 남미 파종 시작으로 5개월 연속 하락

품목	8월말	9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소맥(cents/부셸)	809.00	921.50	13.9	19.6	27.0	702.0	932.44
옥수수(cents/부셸)	673.75	677.50	0.6	14.2	26.2	581.9	702.62
대두(cents/부셸)	1507.50	1364.75	-9.5	2.7	8.7	1374.7	1591.44
쌀(\$/cwt)	17.51	17.17	-1.9	17.4	25.2	13.3	16.28
원당(cents/파운드)	17.89	18.42	3.0	-2.4	-7.1	17.9	18.68

주 : CBOT-ICE 선물가격 기준. 부셸은 27.2kg, cwt는 45.4kg. 자료 : Bloomberg



□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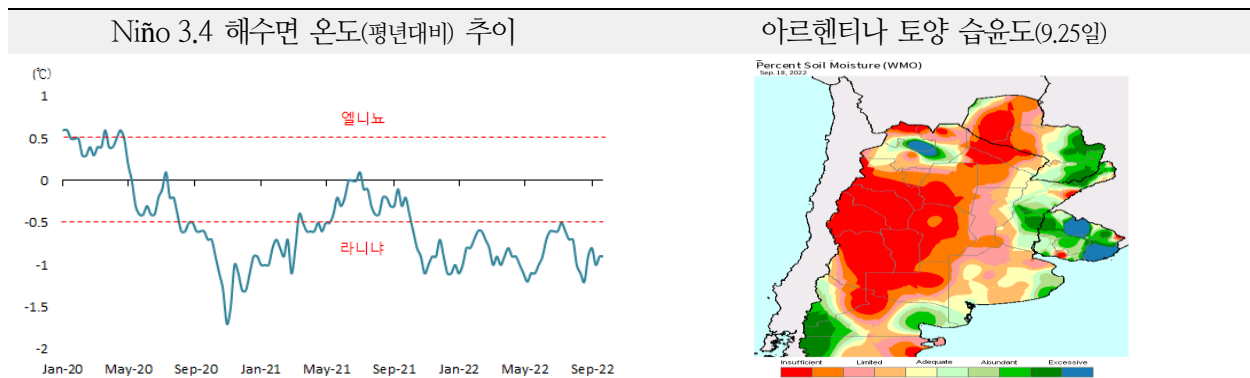
- 美 곡물 작황 : 옥수수 및 대두 수확률 다소 부진, 겨울밀 파종 순조롭게 진행
 - 옥수수 수확률은 9.25일 기준 12%로 예년평균(17~21년)을 2%p 하회했으며, 대두 수확률도 8%로 예년평균(13%)보다 부진. 옥수수와 대두의 上級비율은 각각 52%와 55%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봄밀의 수확률은 96%로 마무리 단계. 겨울밀(파종: 9~10월, 수확: 익년 6~7월) 파종은 9.25일 31%로 예년평균을 1%p 상회.

	上級비율(Good/Excellent ratio)			수확률	
	9.25	전년동기	10.2	'17~'21 평균	10.2
소맥(보밀)	-	-	-	-	-
옥수수	52%	59%	52%	22%	20%-
대두	55%	58%	55%	25%	22%-

자료 : USDA

○ 농업기상여건 : 라니냐 내년 1월까지 지속 예상. 남미 가뭄 지속

- Niño 3.4(태평양 적도 중앙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9.21일 평년 대비 -0.9°C 로 라니냐 상황(평년 대비 -0.5°C 이하)이며, 1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 91%(美 해양대기청, NOAA). 라니냐 영향으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건조한 날씨가 지속



자료 : NOAA

자료 : USDA

○ 세계 곡물수급 : '22/'23년 소맥 제외 곡물 생산 및 기말재고 전월대비 하향조정

<세계 곡물수급 전망(억톤)>

	'21/'22	'22/'23		전년비	전월비		'21/'22	'22/'23		전년비	전월비
		8월	9월					8월	9월		
곡물						소맥					
생산	28.01	27.62	27.56	-1.6%	-0.2%	생산	7.80	7.80	7.84	0.5%	0.6%
소비	28.03	27.83	27.83	-0.7%	0.0%	소비	7.95	7.89	7.91	-0.5%	0.3%
기말재고	7.99	7.78	7.72	-3.4%	-0.7%	기말재고	2.76	2.67	2.69	-2.6%	0.5%
재고율	28.5%	27.9%	27.7%	-0.8%p	-0.2%p	재고율	34.7%	33.9%	34.0%	-0.7%p	+0.1%p
옥수수						대두					
생산	12.20	11.80	11.73	-3.9%	-0.6%	생산	3.53	3.93	3.90	10.3%	-0.8%
소비	12.00	11.85	11.80	-1.7%	-0.4%	소비	3.63	3.78	3.78	4.1%	-0.2%
기말재고	3.12	3.07	3.05	-2.4%	-0.7%	기말재고	0.90	1.01	0.99	10.3%	-2.5%
재고율	26.0%	25.9%	25.8%	-0.2%p	-0.1%p	재고율	24.7%	26.8%	26.2%	+1.5%p	-0.6%p

자료: USDA WASDE('22.9월)

□ [이달의 관전포인트] 러시아 생산 호조, 남미 파종 우려, 국제유가 약세, 투기 동향 등

- 금년 러시아 소맥 생산 역대 최대치 기록 예상
 - SovEcon(러시아 농산물 전문 분석기관)은 금년 소맥 생산 전망을 기존보다 530만톤 상향하며 사상 처음으로 1억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소맥을 포함한 총 곡물 생산도 역대 최대인 1.51억톤으로 예상
 - 다만 수출은 물류 차질 및 수출세 인상 등으로 7~9월 중 예년평균 대비 14% 감소
- 남미 양대 국가의 상반된 생산 전망
 - 브라질의 '22/'23년 대두 파종(10~12월)이 시작되는 가운데 생산은 경작면적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난 1.5억톤 예상. 옥수수 등의 작황도 호조 예상(Conab)
 - 반면 아르헨티나는 가뭄 지속으로 곡물의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파종이 지연될 가능성 제기
- 국제유가 최근 약세는 옥수수 수요 감소 요인
 - 9.23일 에탄올 블렌딩 수요(4주 평균, 이하 동일)는 일일 89.7만배럴로 7월말 이후 최저 수준. 생산도 8월초 하루 103만배럴에서 9.23일 92.7만배럴로 감소
- 투기자금 유입은 품목별로 다른 양상
 - CBOT 소맥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포지션은 8월 중순 -1.7만계약에서 9.27일 +0.19만으로 순매수 전환. 신규매수보다는 숏커버링에 의한 것으로 추정
 - 옥수수 선물옵션의 순포지션은 같은 기간 중 +20만계약에서 +28.4만으로 증가. 대두 순포지션은 9.27일 +8.7만계약에서 +8만으로 감소세

□ [전망] 수확철 본격화, 각국의 공격적 긴축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은 하방 압력 하에 놓일 전망. 다만 파종이 시작된 남미 날씨와 러시아 변수에는 주목할 필요

- 돌발변수만 없다면 위험선호 심리의 향방에 따라 금융자금이 유출세로 전환하여 곡물가격 전반에 언더슈팅(undershooting, 단기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cents/부셸)〉

	9월(a) ¹⁾	'22.4Q(f) ²⁾	'23.1Q(f) ²⁾	2Q(f) ²⁾	3Q(f) ²⁾
소맥	852.48	862(-13)	867(-13)	870(-80)	860(-55)
옥수수	681.86	600(-)	650(-48)	628(-52)	578(-60)
대두	1,465.51	1,400(-)	1,363(-137)	1,330(-120)	1,270(-105)

주. 1) 9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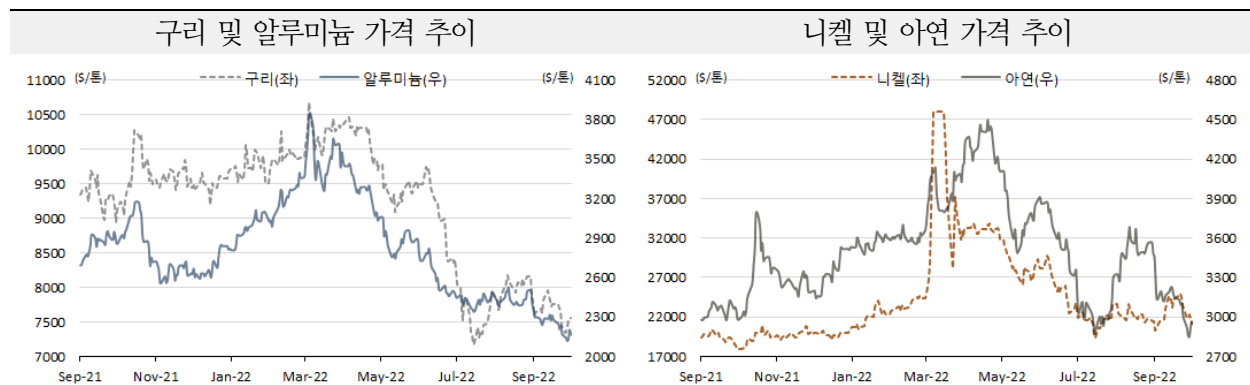
4. 비철금속

□ [9월 시황]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3.1%, 알루미늄 -8.4%, 니켈 -1.4% 등

- 글로벌 제조업 경기침체,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달러강세, 금융 자금 유출 등으로 구리는 6개월 연속 하락, 알루미늄은 2개월 연속 약세
- 니켈은 인도네시아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 등 여전히 타이트한 수급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 호조 등으로 상승. 아연과 납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각각 -14.2%, -2.2%

품목	8월말	9월말	전월비(%)	연간(%)	전년 동월비(%)	평균가격	
						'21.	'22.(ytd)
구리(\$/톤)	7,801.5	7,560	-3.1	-22.2	-15.4	9,293.5	9,059.0
알루미늄(\$/톤)	2,359	2,162	-8.4	-23.0	-24.4	2,485.9	2,833.7
니켈(\$/톤)	21,411	21,107	-1.4	1.7	17.7	18,466.9	25,650.9
아연(\$/톤)	3,459.5	2,968	-14.2	-16.0	-0.7	3,007.3	3,594.9
납(\$/톤)	1,950	1,908	-2.2	-17.2	-8.8	2,189.4	2,163.2
금(\$/온스)	1,711.04	1,660.61	-2.9	-9.2	-5.5	1,799.3	1,826.7
찰광석(\$/톤)	95.25	95.48	0.2	-16.3	-20.7	136.01	118.78

주 : 찰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 기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LME

자료 : Bloomberg, LME

□ [이달의 관전포인트]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화, 글로벌 교역 둔화, 유럽發 공급부족 등

-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화
 - 9월 FOMC에서 美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 75bp 인상한 데 이어 ECB,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중앙은행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폭을 확대
 -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영국(50bp), 스위스(75bp), 노르웨이(50bp), 대만(12.5bp), 홍콩(75bp), 인도네시아(50bp), 필리핀(50bp) 등이 기준금리를 인상
 - 연준의 점도표 상향조정 등 강력한 긴축 의지로 달러인덱스는 20년만에 최고 수준

○ 글로벌 교역 둔화 및 세계 경기침체 우려 점증

- Drewry 세계 컨테이너 지수는 9월 셋째주에 '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0피트 컨테이너당 \$5,000 이하로 하락했으며 9.29일 현재 4,014.1(31주 연속 하락세, 전년동기대비 -61%)
- ▲에너지 위기 ▲통화긴축 가속화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유로존 및 영국은 금년말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미국은 '23년 중반에 미약한 경기침체를 경험할 가능성.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Fitch)

○ 구리 : 유럽의 전력난, 수요둔화 등으로 공급과잉 예상

- 러시아의 가스공급 대폭 축소로 전력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유럽 제조업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둔화 가능성이 증대
 - 구리 수요는 통상 세계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에 크게 좌우되나 이번에는 유럽(세계수요의 15~20%)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 세계수급은 수요증가율을 상회하는 공급증가율의 영향으로 금년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내년에는 공급과잉 폭이 확대될 전망(BoA)

○ 알루미늄 : 중국의 수입 감소, 유럽 제련소들의 감산 지속

- 중국의 8월 알루미늄 수입은 2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 사상 최대의 국내 생산 등이 수입수요 감소를 주도(MetalMiner)
- 팬데믹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증대 등으로 유럽의 제련소들은 감산 행보를 지속
 - 슬로바키아 최대 생산업체 Slovalco社は 조만간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네덜란드의 유일한 1차 알루미늄 생산업체 Aldel社도 생산 중단을 계획 중(MetalM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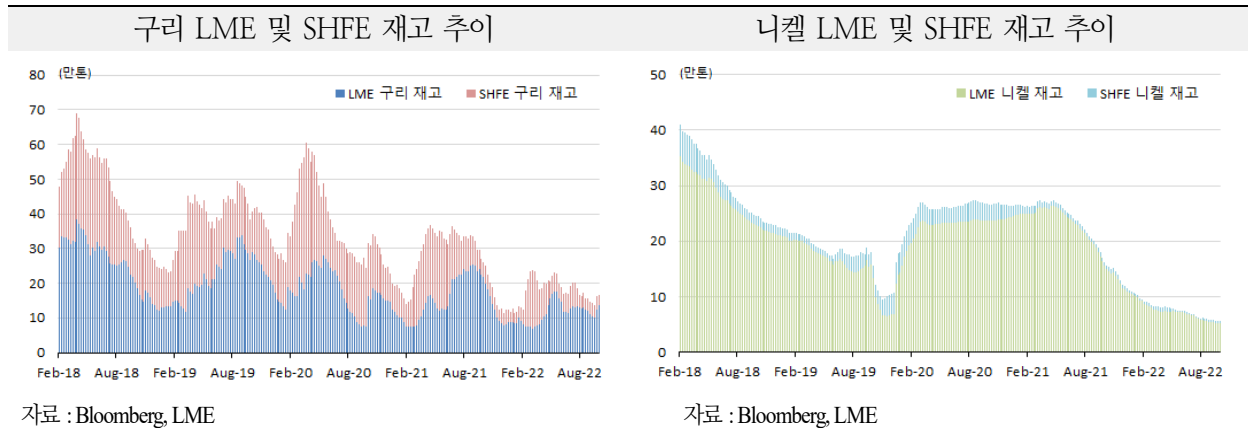
○ 니켈 : 인도네시아 공급 증가로 내년 글로벌 공급과잉 가능성

- 인도네시아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배경으로 증산에 적극이며, 올해 생산능력 목표치인 140만톤을 상회할 가능성(Bloomberg). 한편 '20년 1월 원광 수출금지 이후 중국으로 저품질 제품인 페로니켈의 수출을 큰 폭 확대(SMM)
- 유럽發 수요충격,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생산 증가 등으로 공급과잉 여건이 형성. 올해 남은 기간 및 내년까지 유럽 수요는 30% 급감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 거래소 재고 : 니켈 재고 가파른 감소세, 구리 재고 5월 이후 감소

- 니켈 런던거래소(LME) 재고는 9.30일 기준 5.28만톤으로 연초 이후 50% 감소, 상해선물거래소(SHFE) 재고는 2,706톤으로 연초의 54% 수준에 불과

- 구리 LME 재고는 9.30일 13.5만톤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



□ [전망] 국제비철금속 가격은 공급측 요인보다 수요측 요인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 움직임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은 가격 전망치를 하향조정
 -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를 반영해 '22년 니켈가격 전망치를 톤당 \$27,500에서 \$24,250으로, '23년 전망치를 \$24,000에서 \$22,500으로 하향조정(Fitch Solutions)
 - 알루미늄 가격은 팬데믹 이후 더딘 건설경기 회복세, 중국 및 유럽 수요둔화 등으로 한동안 약세를 보일 가능성(Moody's)
 - 구리 가격은 칠레·페루에서의 공급차질, 재고 감소 등으로 하락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Moody's)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톤)〉

	9월(a) ¹⁾	'21.4Q(f) ²⁾	'22.1Q(f) ²⁾	2Q(f) ²⁾	3Q(f) ²⁾
구리	7,664.2	7,400 (-350)	7,617(-133)	7,767(-458)	8,000(-550)
알루미늄	2,240.1	2,382(-318)	2,400(-300)	2,300(-535)	2,400(-615)
니켈	22,921.3	22,378(-622)	21,400(-350)	21,450(-450)	22,500(-600)
아연	3,105.7	3,301(-249)	3,200(-250)	3,200(-200)	3,400(-200)
납	1,876.2	1,900(-175)	1,879(-21)	1,896(-194)	1,918(-192)

주. 1) 9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혹은 jsch@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